

NEWSLETTER

한유협 2025학년도 3호

흔들림 속에서도 피어나는 풀꽃처럼, 우리의 길을 묻다

봄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정에는 다시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강의실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구절이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 서로 다른 삶의 이력을 지닌 학습자들이 함께 하는 오늘의 캠퍼스는 우리 교육의 역할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전문대학 유아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유보통합 논의가 잠시 멈춰 선 지금, 우리는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시간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 흐름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실습 체계를 다듬어 왔지만, 정치적 상황 속에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였습니다. 정책 환경이 흔들릴 때 교육의 방향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중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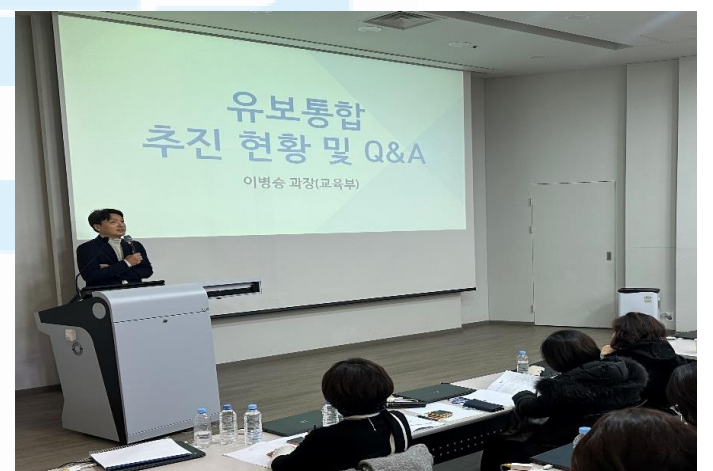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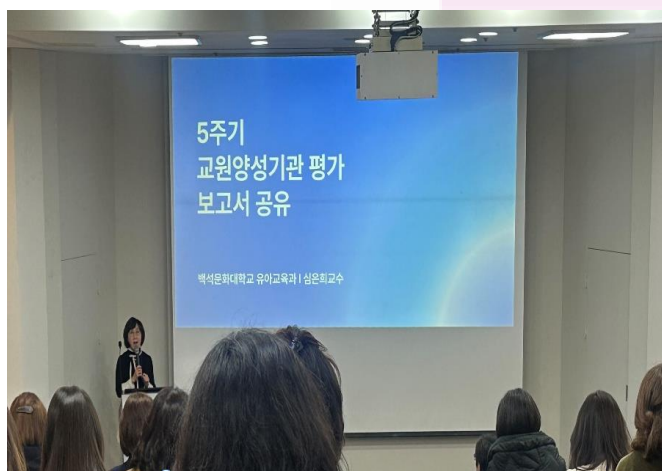
2026년 전문대학 교원양성기관평가는 다가오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는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실천 역량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겠다는 우리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협의회는 바로 그 중심을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정책이 잠시 멈춘 시간 속에서도 입장을 정리하고, 평가를 준비하며, 각 대학이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 하는 일은 지금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전문대학 유아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지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봄은 소리 없이 오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풀꽃을 오래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전문대학 유아교육은 흔들림을 지나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력과 보람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연대와 지혜가 전문대학 유아교육의 미래를 더욱 밝고 굳건하게 세워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송정보대학 심재연

2025학년도 제2차 한유협 워크숍



1. 목적: 회원교의 유아교육과 지속성 및 경쟁력 제고
 2. 일시 : 2026년 1월 16일 09:00-15:00
 3. 장소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본관 1층 국제회의실
- ※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 유치원 교원양성 관련 현안에 대한 자문 및 협회 ”

1. 일시 : 2025년 11월 14일
2. 장소 : 아티제 서울스퀘어점
3. 참석자: 교육부(이병승 과장), 한유협(이종향 회장), 4년제 유치원교사 양성학과협의회(김낙흥 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고영미 회장)

4. 내용

- 영유아교원 과정으로서의 유치원 교원양성 관련 계획 공유
- 유보통합이 교원양성과정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
- 추후 계획(유아교육계 3명, 보육계 3명이 교육부장관과 직접 면담 가능하도록 계획)
- 2026년 1월 16일(금) 워크숍 참석 요청



2. 2026년 중점추진과제 정보 공유 ”

1. 일시 : 2026년 1월 23일
2.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3. 참석자: 교육부(이병승 과장, 김규환 사무관), 한유협(이종향 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박수경 회장), 한국아동학회(이강이 회장), 한국보육지원학회(신윤승 회장, 김진욱 전회장),

4. 내용

- 유아교사 양성학과 4년제 운영 추진
- 학과명 일원화 추진(영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등)
- 학과 전환 시, 지원책 논의
- 석사학위과정에서 교사양성가능 추진: 전문대학도 석사학위과정 운영 지원 요청
- 2월 중 장관 및 차관 미팅 추진 예정
- 기타사항: 유아교사양성과정 조속 추진 요청, 이병승 과장 인사발령 예상(미국LA)



3. 2026학년도 영유아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논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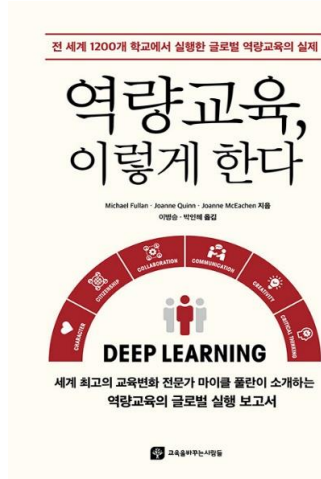


1. 일시 : 2026년 2월 11일
2. 장소 : 한국보육진흥원
3. 참석자: 교육부(영유아지원관, 교육부정책자문단, 영유아교원지원 사무관), 한유협(이종향 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장,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협의회장, 한국보육지원학회장, 한국아동학회장

4. 내용

- 2026학년도 영유아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방안 논의 및 각 단체들의 의견 개진
- 전문대학의견: 기존의 입장 전달, 유보통합 적극적인 추진 요청, 장기적인 교원수급인력확보를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에 필요한 역할 요청
- 교육부 제외 참여단체장들은 존속히 유보통합 중 예비교원에 대한 정책 추진 요청

4. 출간 도서 안내 ”



역량교육, 이렇게 한다. 이병승, 박인혜 역. 교육을바꾸는사람들.

Michael Fullan, Joane Quinn, Joanne McEachen이 공저한 「Deep Learning: Engage the World Change the World」를 번역한 책이다. 글로벌 역량과 깊은 학습의 네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깊이 있는 학습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리더십과 시스템 전체의 변화에 대한 교육 맥락과 사례를 통해 교육역량의 실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흔들리는 아이들 길을 잃지 않도록: 중독 권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의 권리 보호하기. 김은아 저. 공동체.

뇌과학과 발달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중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아이들이 왜 중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지를 환경적·사회적 요인과 연결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다. 단순히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권리와 안전'이라는 핵심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아이의 조절력과 자존감을 키우고, 건강한 '첫 번째 습관'을 형성 하도록 돕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